漢文讀法에 쓰여진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오코토點의 비교*

-「瑜伽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중심으로-

尹幸舜**

요 약

本考는 韓國의 角筆符號口訣資料 중에서「瑜伽師地論」卷第三·卷第五·卷第八의 三卷에 나타나는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에 關聯되는 問題點을 日本의 訓點資料와 比較考察을 시도하였다. 角筆點吐口訣의 年代推定에 대한 重要性과 點吐口訣과 ヲコト點의 機能을 比較檢討하였다. 또한 日本의 ヲコト點과 韓國의 點吐口訣에 나타나는 符號 形態에 대한 特徵을 指摘하였으며, 日本의 ヲコト點과 韓國의 點吐口訣의 가장 基本이 되는 單星點의 位置設定에 대한 比較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日本과 韓國의 點圖가 나타나는 特徵을 言及하였다.

이와 같은 比較檢討에 의해서 日本의 訓點에 있어서 ヲコト點의 特徵은 韓國의 點吐口訣과 類似한 點과 매우 다른 특징들을 指摘할 수 있었다. 앞으로 다른 角筆符號口訣 자료의 考察과 함께 符號口訣에 대한 解讀의 進展에 따라서 韓日兩國의 漢文讀法에 사용된 點吐口訣의 모습을 좀 더 명확히 밝힐 수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핵심어: 角筆符號口訣, 點吐口訣, 文字口訣, 點圖, 角筆點, 訓點, 오코토點

1. 머리말

2000년 7월에 일본의 漢文訓讀法 연구에 권위자인 小林芳規 일행과 함께 한국의 漢文文獻에 나타나는 角筆點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佛典資料에서 角筆符號口訣에 의해서 한문을 석독한 획기적인 국어사적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로 角筆符號口訣이 기입된 자료가 확인된 것은 11세기 전반기의 초조대장경 판본으로 추정되는 「瑜迦師地論」 卷第三·卷第五·卷第八의 3卷,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로 추정되는 판본으로, 재조대장경의 底本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周本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六·卷第二十二·卷第三十一·卷第三十四·卷第三十六·卷第五十七의 6卷, 9세기에서 10세기의 판본으로 추정되는 晉本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二十의 1卷, 11세기에서 12세기로 추정되는 판본으로서 「妙法蓮華經」 卷第一의 1卷으로 모두 11卷의 佛典資料이다.[1)]

角筆符號口訣은 일본의 오코토點 등과 같은 기능을 나타내는 한문 독법으로, 원 한문의 문장을 자국어로 읽기 위해서 해당 한자에 다양

---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1-A00220).

** 한밭대학교 교수

1) 李丞宰(2000), 「새로 발견된 角筆符號口訣과 그 의의」, 『새생활국어』 제10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24호, 韓國書誌學會.

南豊鉉·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제107집, 訓點語學會.

南豊鉉(2002), 「高麗時代 角筆點吐 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중심으로－」, 『朝鮮學報』 제183집, 朝鮮語學會.

小林芳規·西村浩字(2001), 「韓國遺存の角筆文獻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제107輯, 訓點語學會.

한 부호를 위치에 따라서 그 讀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漢文釋讀法은 이제까지 日本의 漢文訓讀에서만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독법은 日本이 獨自的으로 고안하여, 발달시킨 漢文訓讀 表記法이라고 알려져 왔다.[2] 그러나 한문독법에 있어서 일본 오코토點 등과 같은 동일한 양식의 符號口訣이 韓國의 9세기에서 12세기로 추정되는 판본의 佛典資料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符號口訣이 漢文을 韓國語로 읽기 위한 표기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제까지 정설로 되어왔던 일본고유의 한문독법 표기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韓·日兩國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국어사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다.[3] 즉 이것은 韓·日兩國의 漢文讀法 연구는 물론이며, 더 나아가서는 漢字文化史나 國語史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특히 중세이전의 자료가 부족한 한국어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大方廣佛華嚴經」과 「妙法蓮華經」과는 다르게 다양한 角筆符號口訣을 기입하고 있는 「瑜伽師地論」 卷第三·卷第五·卷第八의 3卷을 대상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는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의 성격과 부호형태가 일본의 오코토점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한문독법과의 비교 연구는 일본의 오랜 연구역사에 의해서 축적된 연구법과 풍부한 자료에 의해서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비교연구가 한국의 귀중한 角筆符號口訣 자료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발전에 자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中田祝夫(1954), 『古點本の國語學的研究 總論篇』, 講談社, pp.183~184.
石塚晴通(1993), 「中國周辺諸民族に於ける漢文の訓讀」, 『訓点語と訓点資料』 第90輯.

3) 吉田金彦·築島裕 外編(2001), 「總論」「角筆」, 『訓點語辭典』, 東京堂出版, p.3, p.89

2. 韓·日兩國의 漢文讀法에 使用된 角筆點의 성격

한국에서 발견된 11권의 불전자료에는 全卷에 매우 상세하게 角筆符號口訣이 기입되어 있다. 현재 부호구결 기입에 사용된 각필도구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훈점자료에서 사용된 각필도구의 예를 보면, 끝이 뾰족한 상아나 대나무의 딱딱한 도구에 의해서 紙面에 자국을 내어 문자나 부호를 기입하고 있다. 「瑜伽師地論」 3권에 나타나는 角筆符號口訣은 文字口訣·點吐口訣·點圖表示·逆讀符號·修訂符號·符號口訣記入境界線·合符·橫線의 句切線 등으로서 한문해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부호구결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며,[4] 이러한 표기법은 「大方廣佛華嚴經」의 다른 符號口訣資料나 墨書의 釋讀口訣資料에서도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입방식은 한자의 文面을 손상시키지 않는 角筆點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漢文讀法의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角筆用具의 사용은 毛筆에 의한 朱墨으로 기록할 때보다 原本資料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또한 모필을 사용할 때처럼 먹을 갈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속기용의 기록이나 일시적인 메모 등에 편리한 利點이 있다. 또한 얼른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기입자만이 알 수 있는 개인의 메모나 비망록 등을 작성할 때에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

4) 남풍현(2000)에서는 符號口訣을 點吐口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승재(2001)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용어를 정리하여, 일본의 星點·線點 등에 해당하는 문자화가 가능한 부호를 點吐라고 하였으며, 그 외의 合符나 逆讀線 등과 같은 문자화가 불가능한 부호들을 부표라고 구별하였다. 또한 文字로 기입된 口訣은 장경준(2001)의 字吐口訣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부호구결이라는 용어는 이승재의 점토와 부표의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하위개념으로 문자화가 가능한 부호를 點吐, 문자화가 불가능한 부호들은 合符나 逆讀線 등 각각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의 傳受에 필요한 후대의 학습자나 연구자의 주목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에 발견된 한국의 角筆符號口訣도 형광등의 불빛 아래서는 거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角筆符號口訣자료에 대한 열람 조사가 여러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角筆符號口訣의 기입이 발견되었다는 점도 각필점의 존재 확인의 어려움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각필점의 정확한 조사·연구에는 이러한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각필Scope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에 있어서 角筆訓點 연구는 1960년대 小林芳規에 의해서 조사·연구되어 왔으며, 그 성과로서 2권의 방대한 연구서가 출간되기도 하였다.[5]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로서 角筆點이 기입되어 있는 문헌은 일본에서만도 3,000여점이 넘는다.[6] 이러한 자료를 시대별로 보면 1999년 현재 12세기까지가 65점, 13세기에서 14세기까지가 80점,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가 56점, 16세기 이후의 자료가 2500여점으로 후세의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7]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필문헌에 대한 보고도 있으며,[8] 이어서 한국에서도 최근에 각필자료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에서 발견된 각필자료는 일본의 일반적인 古訓點本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오코토점의 기입방식이 角筆符號口訣자료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5) 小林芳規(1987), 『角筆文獻の國語學的研究 研究篇』『角筆文獻の國語學的研究 影印資料篇』, 汲古書院

6) 小林芳規編(1999), 『角筆文獻目錄(1999年度版) 附·角筆文獻論考』, 私家版.

7) 吉田金彦·築島裕 外編(2001), 小林芳規 執筆「角筆」, 『訓點語辭典』, 東京堂出版, p.87

8) 小林芳規(1994), 「敦煌の角筆文獻 ―大英圖書館藏「觀音經」(s.5656)の加點―」, 『訓點語と訓點資料』 第96輯.

_____(1997), 「敦煌文獻に加點された角筆の符號と注記及び本邦の古訓點との關係」, 『訓點語と訓點資料』 第100輯.

할 것이다. 일본의 角筆資料에서 나타나는 訓點은 가나(假名)·오코토점·聲點·漢文註記·漢字音·合符·合點·句切點 등으로 朱墨點으로 加點된 訓點資料와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각필점의 사용자도 南都의 古宗·眞言宗 등 佛家에서 博士家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角筆이 사용된 일본의 훈점자료는 언어학적 자료로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原漢文에 각필점이 朱墨點과 함께 기입되어 있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原漢文에 각필점만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 두 번째의 문헌이 각필훈점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10세기 중기경의 「石山寺藏 沙彌十戒威儀經」과 「石山寺藏漢書高帝紀 下」 등의 자료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동일한 성격의 자료로서 角筆點이 먼저 기입된 후에 朱墨點이 된 9세기의 「興盛禪寺藏大唐西域記卷第一」, 960년경의 「石山寺藏 求聞持法」 등의 자료를 들 수 있다.

특히 角筆訓點資料는 10세기의 儒家訓點資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각필자료에서 보면 10세기 中期頃에 角筆點 사용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며, 言語事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다.[9] 또한 10세기까지는 자료의 全文에 角筆點이 기입되어 있는 데 반해서 11세기를 경계로 해서 이후로는 각필점 기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자료가 많아진다. 일본의 訓點資料가 平安시대(783-1200) 것만으로도 5,000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한다면, 연대가 오래되고 각필점 중심으로 全文에 기입된 角筆文獻은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훈점자료의 각필점 성격으로서 小林芳規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로 毛筆의 습관이나 전통에 의한 규칙의 테두리 밖에 있는 言語事象이 각필의 언어표현에 나타나는 점, 두 번째로

9) 小林芳規(1987), 『角筆文獻の國語學的硏究 硏究篇』, 汲古書院, pp.273 以下.

언어의 역사적 변화의 결과가 毛筆문헌에 비해서 각필문헌 쪽이 먼저 나타나는 점, 세 번째로 각필의 언어표현에는 俗語가 반영된다는 점이다.[10] 이러한 주장은 즉 毛筆이 일반적인 필기 도구였는데 반해서, 角筆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전달에 안성맞춤이었다는 점, 毛筆과 달리 講義나 聽聞 때에는 필기에 사용된다는 角筆點의 특성으로 인하여, 표기면에 있어서 가타가나(片假名) 대신에 히라가나(平假名)사용, 음운상 이른 변화형인 방언, 구두어의 반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문훈독이라는 제한된 언어현상에서는 위와 같은 각필점의 특징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角筆點이 이후에 朱墨點으로 移點된 훈점자료라는 점은 각필점도 일반적인 朱墨點과 동일한 한문훈독이라는 언어현상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異論도 있다.[11]

위와 같은 일본의 角筆點 성격이 한국의 角筆符號口訣 자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는 앞으로 어느 정도 부호구결의 독법이 밝혀진 뒤에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角筆符號口訣이 나타나는 자료가 初雕大藏經과 같은 佛典이라는 점과 「瑜伽師地論」「大方廣佛華嚴經」「妙法蓮華經」이라는 敎學의 전통적인 佛典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角筆言語의 성격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일본의 각필점의 경우에는 기입자의 일시적인 메모나 비망록의 성격을 띠는 자료의 부분기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부호구결을 상세하게 자료 全文에 기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언어현상이나 방언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기대할

10) 小林芳規(1987), 『角筆文獻の國語學的研究 研究篇』, 汲古書院, pp.666 以下.
11) 石塚晴通(1988), 「書評 小林芳規著 『角筆文獻の國語學的研究』」, 『國文學攷』, 廣島大學國語國文學會.
築島裕(1992), 「角筆點から毛筆點への移點」, 『小林芳規博士退官記念 國語學論集』, 汲古書院.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일본의 角筆資料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年紀기입을 한 자료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毛筆資料는 年紀기입을 한 자료와의 비교에서 가나(假名)字體·오코토點·필사본 연구 등으로 연대추정을 하고 있으나, 각필자료에서는 이러한 언어현상의 추정이 毛筆資料보다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訓點資料가 일본어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취급되고 있는 점 중의 하나는 年紀가 기입되어 있는 一等資料로서 정확한 시대의 언어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築島裕가 직접 조사한 平安時代 訓點本(783~1200)의 現存資料에 대한 年紀記入에 대해서 조사한 예를 들어보면, 총 3,355점의 자료에 대해서 年紀가 있는 자료는 1,964점(64.3%)이며, 年紀가 없는 자료는 1,391점(35.7%)이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9세기 訓點本은 180점 중에서 年紀를 갖고 있는 문헌은 약8% 정도이며, 10세기에 가서도 190여 점 중에서 21%를 약간 넘고 있다. 그러나 11세기 들어가면 訓點本數는 갑자기 앞의 기간의 약 3배인 600점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年紀가 있는 자료가 60%를 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종파의 불교 교학이 융성하였다는 점과 다른 유파간에 교학상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원인도 있었지만, 아마도 11세기 중기 정도부터 訓點을 스승에게서 전수하는 學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祖本의 본문이나 訓點을 충실하게 전승하는 訓點의 고정이라는 결과가 訓點本의 증가와 함께 年紀기입의 기회도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12]

위와 같은 年紀기입이 있는 자료는 거의가 毛筆에 의한 훈점자료라는 점에서 각필자료에서 나타나는 언어현상에 대한 연대추정에는 毛筆

12) 築島裕(199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硏究篇』, 汲古書院, pp.25 以下.

資料보다 어려운 점이 뒤따른다. 한국의 墨書·角筆口訣資料들은 판본이 중심인 반면에 일본의 훈점자료는 필사본이라는 특성상 年紀기입이나 識語기입 자료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角筆符號口訣 자료에 대한 각필점의 연대추정도 앞으로 연구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현재 각필점에 대한 연대추정은 현재 판본이 만들어진 후에 얼마 안되어서 각필점이 기입되었으리라는 추정에 의해서 연대추정을 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일본의 예에서 본다면 사본의 필사시기와 훈점의 기입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언어현상의 고찰에 입각해서 각필점의 연대가 추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角筆符號口訣자료는 일본의 角筆訓點資料와는 달리 文字口訣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거의 點吐口訣에 의해서만 상세한 釋讀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자료발견이 필요하며, 판본시기가 다른 자료발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발견에 의해서 각필점의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확한 연대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漢文讀法에 있어서의 點吐口訣과 오코토點의 기능

일본훈점의 초기자료로서 句切點·返點·수개의 星點 등이 기입되어 있는 「華嚴刊定記卷第五」(1卷)(783년; 白點 / 788년; 朱點)·「華嚴要義問答 卷上·卷下」(2卷)(799년;識語 / 802년;黃褐色點)·「華嚴文義要決」(1卷)(800년경; 黃褐色點) 등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訓點은 南都古宗의 하나인 華嚴宗의 학승 사이에서 창안되어 사용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13] 이와 같은 관점과 함께 상기 자료 중에서 「華嚴文義要決」에 기입된 오코토점은 한국의 角筆符號口訣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14]

일본 한문훈독의 기입은 가타가나(片假名)와 오코토점을 사용하여, 日本語 語順으로 읽어내려 가는 것이 일반적인 訓讀法이다. 일본 한문훈독에 사용된 오코토점은 가나(假名)보다도 나중에 발생하였으며, 훈점에 있어서 符號化는 먼저 句點·返點(역독부호) 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일반적인 정설이다.[15] 초기의 오코토점은 간단한 기호로서 미발달한 略體가나(假名)보다도 빨리 쓸 수 있으며, 좁은 한문의 행간에도 불편하지 않게 기입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사용되었지만, 오코토점은 어디까지나 한자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대응하는 언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수 개의 부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더구나 하나의 한자에 수 개의 부호가 나타났을 때 어느 것부터 읽어야 좋을지 그 순서를 알 수 없다는 본질적인 단점을 갖고 있어서 언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호로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한문훈독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읽기 위해서 오코토점과 가나(假名)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오코토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의 초기 훈점자료에서는 하나의 한자에 여러 개의 오코토점을 기입할 경우 그 읽는 순서를 나타낸 예를 볼 수 있다.

아래의 (A)의 (1)(2)는 「大乘掌珍論承和·嘉祥點」(834년·849년;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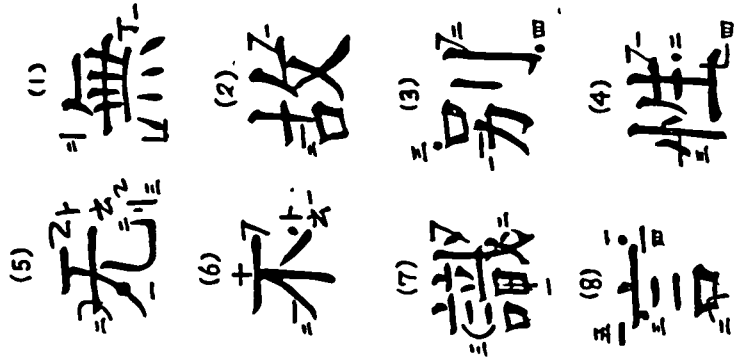
13) 築島裕(1969), 『平安時代語新論』, 東京大學出版會, pp.28 以下.

14) 小林芳規(2002),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硏究』 제8집, 口訣學會.
小林芳規(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日本古訓點との關係－」, 『朝鮮學報』 第182輯, 朝鮮學會.

15) 春日政治(1952/1984), 「初期點法例」, 『古訓點の硏究』(春日政治著作集 6 所收) 勉誠社, p.267.

點)에서 나타나는 예이며, (3)(4)(5)(6)(7)(8)은 「大東急紀念文庫本大乘廣百論釋承和點」(841년;白點·朱點)에서 나타나는 예이다. (3)(4))에서는 오코토점이 기입된 4곳에 대해서 그 읽는 순서를 기입하고 있으며, (8)에서는 오코토점 5곳에 대해서 그 읽는 순서를 기입하고 있다. 이 자료들에는 풍부한 가나(假名)도 나타나고 있는 훈점자료들인 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오코토점에 읽는 순서를 기입했다는 점은 하나의 한자에 여러 개의 오코토점이 나타나는 훈독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16] 이외에도 「聖語藏本中觀論古點」(850년경;白點)에도 이러한 예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17] 오코토점에 읽는 순서를 기입하는 방법은 일본훈점자료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A) 오코토점의 읽는 순서를 나타낸 예



일본 훈점의 표기방법은 위에서 지적한 오코토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動詞나 名詞 등은 문자인 가타가나(片假名)로, 助

16) 大坪併治(1961), 『訓点語の研究』, 風間書房, pp.42
17) 鈴木一男(1979), 『初期點本論攷』, 櫻楓社, pp.53.

詞나 助動詞類는 부호인 오코토점에 의해서 기입하는 문자와 부호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 일본자료에서도 오코토점 중심으로 이루어진 훈점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새로이 발견된 「春秋經伝集解卷第二」(9세기말~10세기경; 朱點·墨點)에는 가나(假名)點이 수개만이 기입되어 있는 오코토점 중심의 漢籍資料로서 일본의 훈점자료 중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료로서 보고되었다.[18]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발견된 「瑜伽師地論」을 비롯한 다른 角筆符號口訣 資料에서는 완전히 점토구결만으로 석독을 한다는 점에서,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석독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고의 중심이 되는 「瑜伽師地論」에서 나타나는 소수의 문자구결은 점토구결과 함께 동일한 口訣字가 기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자구결은 점토구결을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은 일본훈독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B)의 1)~5)는 「瑜伽師地論」에서 점토구결로만 한문을 석독하고 있는 예들이며, 6)~10)은 9세기에서 11세기의 일본훈점자료로서 가타가나(片假名)와 오코토점을 사용하여 훈독하고 있는 예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角筆符號口訣자료 중에서도 「瑜伽師地論」에서는 소수의 문자구결 기입이 나타난다. 3)의 右邊中段의 單點의 점토구결은 目的格助詞 「-을」을 나타내는 것인데, 점토구결을 좀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문자구결 「-乙」을 기입하고 있다. 「瑜伽師地論」에서 나타나는 문자구결은 대부분 점토구결과 함께 기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부호구결자료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문을 석독하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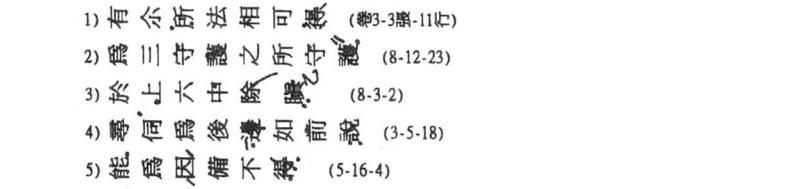
18) 小助川貞二(2001), 「加點稀薄な漢籍訓點資料における典據の問題」, 『漢文古板本とその受容(訓讀)』(일본 北海道大學워크샵 발표논문집).
小助川貞二(2001), 「訓點資料として見た春秋經伝集解卷第二について」(第85回訓點語學會 硏究發表會 論文).

로서의 문자구결을 사용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에서 이와 같은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오코토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가나(假名)를 기입한 자료는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B)의 1)~5)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瑜伽師地論」에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한문의 句節末에 점토구결을 몰아서 기입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한문훈독은 逆讀을 받는 동사나 그에 상응하는 구성소에 오코토점을 기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부호구결의 독법은 원칙적으로 한문 구절의 마지막 한자에 점토구결을 몰아서 기입하는 특징은 다른 부호구결자료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 기입방식이다. 이러한 특징은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順讀口訣에 가까운 형식으로서, 이것에 의해서 順讀口訣의 발생은 墨書釋讀口訣에서 직접 발달한 것이 아니라 符號釋讀口訣에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9] 이러한 현상은 角筆符號口訣 자료가 당시의 언어연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문독법에 대한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9)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호, 韓國書誌學會, 32면 以下.

(B) 點吐口訣과 오코토점의 기입 방법


1) 有 尒 所 法 相 可 得 (卷3-3張-11行)
2) 爲 三 守 護 之 所 守 護 (8-12-23)
3) 於 上 六 中 除 障 之 (8-3-2)
4) 尋 何 爲 後 準 如 前 說 (3-5-18)
5) 能 爲 因 備 不 得 (5-16-4)
6) 如 遮ク 涉ワタル 者ヒト 所 備 資 糧 (東大寺圖書館藏十卷本卷1・117行・白點・883年)
7) 放ハカタス 巾 不 得 引 去サク (石山寺藏珍藏十卷本卷第 257行・角筆點・10世紀中葉)
8) 五 者 不 得 以 熱アツ 湯 燒ソヽキ 火 滅ケツ (左同 239行)
9) 心 相 體サトリ 信ツヽシム 入 出 無 礙ハヽカリ (龍光院藏珍藏十卷本卷2-28張5行・白點・1058年頃)
10) 再タヒ 觀ミ 之 後 無 復 所 遺ワスヽル (興福寺本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1-82行・朱點・1080年頃)

4. 瑜伽師地論에 나타나는 點吐口訣과 일본의 오코토점과의 비교

4.1. 文字口訣

「瑜伽師地論」 卷第三, 卷第五, 卷第八의 3권에는 「乙・七・刂・ラ・田・印・丁・十・孚・三・口・ハ・ッ・乃・ニ・ろ」 등의 문자구결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래의 (C)에 제시한 예들과 같이 점토구결과 문자구결이 동시에 기입되어 있다. 「瑜伽師地論」 3권에는 문자구결이 79예가 기입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12예에는 점토구결이 기입되어 있지 않고 문자구결만이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67예에는 점토구결을 명확히 지시하기 위한 문자구결이 함께 나타난다. 즉 이러한 문자구결의 역할은 점토구결의 보조적인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대체적으로 문자구결은 1자 표기가 많으며, 게다가 助詞가 중심으로 기입되어 있다.

점토구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單點과 함께 기입되어 있는 문자구

결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토구결의 해독에 대단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문자구결에 의해서 單點의 위치와 單點이 나타내는 音節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角筆符號口訣 자료와는 달리 「瑜伽師地論」에서는 중요한 助詞의 위치를 문자구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독작업에 그만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문자구결이 지시한 부호 중에는 판단이 불가능한 예도 있지만, (C)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單點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일본의 오코토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점토구결에 있어서도 單點의 위치와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C)에서 제시되어 있는 「相」에는 좌변상단에 單點이 기입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에 문자구결인 주격조사 「-ㅣ」가 기입되어 있다. 즉 한자의 기입된 좌변상단의 단점의 부호의 형태와 위치는 주격조사 「-ㅣ」라고 지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자구결의 지시기능은 「淸」과 「等」의 한자에 두 개의 單點과 문자구결이 기입된 예로서도 입증할 수 있다. 즉 「淸」과 「等」의 한자에 좌변상단에 기입되어 있는 單點은 「相」의 주격조사 「-ㅣ」와 똑같은 위치로서 문자구결로도 「-ㅣ」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淸」의 우변상단의 單點은 「ㅁ」를, 「等」의 좌변중단 정도의 單點은 「ㅅ」를 지시하는 문자구결을 기입하였다. 이와 같은 문자구결의 역할은 마지막 예인 「等」에 기입되어 있는 두 개의 單點은 문자구결이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선방향의 雙點 「⁚」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角筆符號口訣에서의 점토구결 형태는 일본의 훈점자료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는 다양한 雙點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자구결에 의해서 「等」에 기입된 하나의 단위로 인정되는 雙點의 형태가 아니라 두 개의 음절을 나타내는 單星点의 위치가 사선방향의 雙點 위치로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혼동은 문자구결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한국의 부호구결의 해독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암

시한다. 이와 같은 문자구결의 기능은 일본의 훈점자료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찾아볼 수 없다.

(C) 瑜伽師地論의 문자구결

色七 (卷3-1-12), 攝ラ (卷3-3-8), 他ニ (卷5-8-2), 地ヲ (卷5-11-7), 處ニ (卷3-18-22)
中ナ (卷8-8-3), 相リ (卷8-1-15), 清リロ (卷8-18-12), 等リハ (卷3-19-9)

4.2. 點吐口訣의 부호형태

일본의 오코토점은 한자를 正方形으로 상정해서 字面에 직접적으로 四角의 귀퉁이, 四邊, 중앙 등에 星點이나 線點 등을 기입하고, 원칙적으로 한자와 떨어지지 않는다. 「・」의 星點을 한자의 좌변하단에 기입하면 「テ」, 좌변상단 기입하면 「ニ」, 우변상단에 기입하면 「ヲ」, 우변하단에 기입하면 「ハ」 등으로 읽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입방법은 가나(假名)를 기입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訓點記入을 목적으로 한 실용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오코토점은 그 형태와 기입되는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르며, 또한 이것은 宗派나 學派에 의해서 그 종류가 달라진다.

800년경의 초기 훈점자료인 「聖語藏羅摩伽經」이나 「聖語藏大方廣佛華嚴經」에서 나타나는 오코토점은 7, 8개의 單星點으로서 일본어로 훈독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テ・ノ・ヲ・ニ・カ・ハ・ト」와 「ク・ヲ・ト・テ・ニ・ハ・ノ・カ」 조사를 나타내고 있다.[20] 이와 같이 훈점기입의 초기에는 매우 간단한 單星點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로 부호의 종류수가 증가하여, 복잡한 체계로 발달하여서 그 종류도 약 200

20) 春日政治(1984), 『古訓點の硏究』(春日政治著作集 6 所收), 勉誠社

개에 이른 시기도 있었다. 일본의 오코토점의 형태는 「・・・ ㅡ | ／＼ + ㅅ ㅊ ㅓ ㅏ ㄱ ㄴ ス フ ヒ ム ル ニ ∧ ✓∴」와 같이 기본적으로 單星點과 線點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지만, 「ス フ ヒ ム ル」와 같이 가나(假名)문자를 부호화하여 사용하는 일이 있으며, 이외에도 시각적인 형태의 다양한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21] 12세기에는 略體가나(假名)문자의 발달이 정착되면서 한문훈독을 하는데 있어서도 오코토점의 부호가 십 수 종류로 정리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가나(假名)가 오코토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오코토점의 사용이 적어지게 된다.

한국의 「瑜伽師地論」을 비롯한 다른 부호구결 자료에서도 일본의 오코토점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자를 정방형으로 상정해서, 점토의 형태와 기입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나타내는 음절과 문법적인 요소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점토구결은 「・・・: .・ ・. ㅡ | ／＼ |・ ・| ⊥ ㅜ /・ ・/ \・ ・\ ! -・ ・- 」 등과 같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單點이 기본이 되며, 여기에 線點을 조합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부호구결을 만들고 있다. 즉 單點, 雙點의 각 방향의 형태, 線點의 각 방향의 형태, 點과 線을 조합한 여러 형태는 일본의 오코토점과는 상당히 다른 점으로서, 한국의 점토구결 형태는 點과 線을 이용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계산된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토구결의 형태는 한글의 제작원리와 같다는 주목할 만한 주장이 보고되기도 하였다.[22] 점토구결이 후세의 한글문자 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점토구결의 점과 선을 이용한 구성원리가 天地人과 같은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와 부합하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일본의 경우에도 오코토점의 부호로서 가나(假名)문자가 이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西大寺本金光明經」(830년경;白點)에서는 「ス」의 부호

21) 築島裕(1986), 『平安時代訓點本論考ヲコト點圖假名字體表』, 汲古書院.
22) 李丞宰(2001),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國語學』 38, 國語學會.
李丞宰(2002), 「符號의 字形과 制作 原理」,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는 「スル」 동사에 관련된 단어를 나타낼 때, 기입위치에 따라서 「シテ・スルカ・スルイ・セム・スルニ・スルト・スルヲ」에 사용하고 있으며, 「東大寺本金剛般若經贊述仁和點」(885년;白點)에서는 추량조동사 「ム」에 관련된 단어를 나타낼 때 기입위치에 따라서 「シム・セム・ナム・ラム」에 사용하고 있다. 즉 가나문자를 오코토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나문자의 음절과 관련된 단어를 기입할 때는 훈점기입과 훈독이해의 편의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자의 부호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일본의 오코토점과 한국의 점토구결의 형태에서 상당한 차이점은 점토구결에서 여러 방향으로 사용한 쌍점의 형태이다. 일본의 8群으로 분류되는 點圖集 소재의 26種의 오코토점과 點圖集에 나타나지 않는 오코토점을 사용한 훈점자료 465점에서 쌍점의 사용여부를 조사해 보면,[23] 第1群點 「‥:」, 第3群點 「‥」, 第4群點 「‥:∴」, 第5群點 「‥:∴」, 第6群點 「‥:」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다양한 방향의 쌍점을 사용한 훈점자료는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의 오코토점에서 쌍점의 사용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D)에 제시한 第7群點인 寶幢院點은 11세기에 天台宗延曆寺에서 주로 사용한 오코토점으로서 쌍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三點 「∴∵」의 형태까지 點圖集에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24]

寶幢院點은 일본의 다른 오코토점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는데,[25] 築島裕가 제시한 寶幢院點의 특징을 본고와 관련 있는 사항만을 언급하

23) 築島裕(198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ヲコト點 假名字體表』, 汲古書院.
24) 築島裕(198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ヲコト點 假名字體表』, 汲古書院, p.96. 상기의 저서에 게재된 寶幢院點의 정방형점도는 모두 31개이며, 부호수는 281개이다. 이 중에서 본고와 관련 이 있는 점과 선의 10개의 점도만을 제시한다.
25) 中田祝夫(1954), 『古點本の國語學的硏究 總論篇』, 講談社, pp.471 以下.

면 다음과 같다.[26]

1. 부호수가 모든 오코토점 중에서 가장 많으며, 延應本의 點圖集에서는 28개의 點圖에 260개의 부호가 보인다.
2. 星點「・」을 중복한 複星點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그 종류가 대단히 많고,「‥」「:」「∴」등은 다른 群點에서도 보이지만,「⁖」「⁘」「⁙」등의 형태의 부호는 이 오코토점의 독특한 것이다.
3. 點圖集에서의 정방형점도의 배열이 규칙적이며, 星點「・」의 점도에 이어서 複星點의 6개의 정방형점도, 直線線點「|」「—」「＼」「／」, 鉤線 등이 나타나고 있다.
4. 星點 중에서 정방형점도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과 外邊에 위치하는 것이 매우 근접해 있으며,「ノ」와「ソ」,「ヲ」와「モ」,「テ」와「ト」,「ハ」와「ム」등은 點圖集이 없이는 실제의 訓點本을 정확하게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부호 중에는 실제의 훈점본에 용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적지 않으며, 點圖集에 설정만 되어 있을 뿐으로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부호도 많았던 것 같다. 또「ト」「イ」「七」「ヒ」「ム」「シ」등 동일 부호에 2가지의 訓法이 보이는 예가 있으며, 또한 실제 訓點本에서의 訓法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조차 있다. 寶幢院點은 세부까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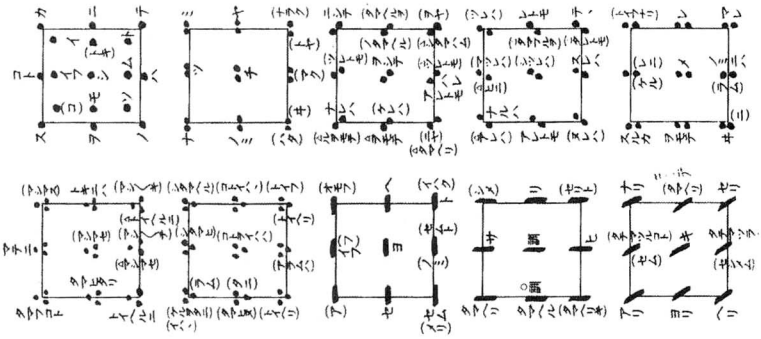
위와 같은 寶幢院點의 특징은 한국의 점토구결과도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1)의 부호수가 매우 많다는 점은 현재 해독과정에 있는 점토구결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점이며, 2)의 쌍점의 다양한 사용은

26) 築島裕(1996),『平安時代訓點本論考 研究篇』, 汲古書院, p.650.

점토구결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점이다. 3)의 點圖集에 나타나는 부호의 정연한 배열에 대해서는 한국은 아직 점도집이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單點·雙點·線點이 정방형점도의 각위치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寶幢院點과 동일한 체계적인 점토구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정방형점도에 위치한 단점이 조밀하기 때문에 점도집이 없이는 단순한 암기나 훈련에 의해서 한문훈독이나 훈점기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으로, 單星點의 위치가 조밀한 것은 한국의 점토구결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독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5)실제의 訓點本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호가 많다는 점과 동일한 부호에 2개의 독법이 있다는 점에서 점도집에 보이는 다양한 부호는 세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점토구결은 點圖集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호가 아니라 실제 부호구결자료에서 보이는 부호이기 때문에 寶幢院點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점토구결의 부호형태 수는 寶幢院點보다 많다는 점에서 해독에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寶幢院點보다 점과 선을 이용한 부호형태의 체계적인 구성원리에 의해서 생각보다 쉽게 해독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한국의 점토구결과 일본의 寶幢院點과의 관련성을 지적한 논고도 있다.[27]

27) 小林芳規(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日本古訓點との關係－」, 『朝鮮學報』 第182輯, 朝鮮學會, pp.60 以下.

(D) 일본 天台宗 寶幢院點의 오코토점



4.3. 正方形點圖에서의 單點의 기입 위치

점토구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單點이며, 단점은 일반적으로 한문을 석독하기 위한 助詞들을 나타내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본 성격은 일본의 오코토점에서도 마찬가지다. 「瑜伽師地論」의 正方形單點圖는 현재 아래의 (E)에서 제시한 기입위치로서 연구되고 있다.[28] (E)의 단점도는 30개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21개나 25개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29] 앞으로의 해독연구의 진전에 따라서 단점도의 위치설정의 숫자가 바뀔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단점도의 조밀한 기입위치는 일본의 오코토점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

28) 李丞宰·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誠庵本『瑜伽師地論』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제9집, 口訣學會, 131면.

29)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24호, 韓國書誌學會, 37면.

장경준(2002),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제9집, 口訣學會, 212면.

일본의 點圖集 소재의 26종의 오코토점을 보면, 상기의 寶幢院點의 경우에도 정방형단점도의 위치는 17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와 비슷한 숫자로는 第2群點에 속하는 喜多院點의 위치설정은 16개, 第1群點에 속하는 西墓點의 위치설정은 15개, 第3群點에 속하는 中院僧正點에 21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點圖集에 나타나지 않은 오코토점을 사용한 훈점자료 465점을 살펴보면, 第1群點에 속하는 「園城寺本金光明經文句」(890년경;白點)의 위치설정은 16개, 「東大寺圖書館本百法顯幽抄」(900년경;褐點)의 위치설정은 15개, 第3群點에 속하는 「知恩院藏大唐三藏玄奘法師表啓」(850년경;白點)의 위치설정은 16개, 第4群點에 속하는 「石山寺說无垢稱經」(850년경;白點)의 위치설정은 15개, 第5群點에 속하는 「東洋文庫本毛詩」(10세기;朱點·墨點·角筆點)에 19개가 설정되어 있다. 이외의 오코토점의 단점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7개에서 14개 이내로 위치가 설정되고 있다.[30]

한국의 유가사지론에서 나타나는 정방형단점도에 21개 이상 30개까지의 單點의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훈점자료에 나타나는 단점도의 위치설정은 계통과 관계없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정방형단점도에서 나타나는 단점은 사각의 모퉁이와 4변이 중심이 되며, 정방형단점도 내부에는 1개에서 4개 정도의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유가사지론의 정방형단점도에 30개의 위치설정을 보면 단점도 내부에 12개가 설정되어 있고 정방형단점도의 외부에 18개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간격은 매우 조밀하여 어떠한 메모나 點圖集이 없이 한문석독이나 점토기입이라는 학문 활동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寶幢院點의 특징에서 언급된 점과 관련해서 생각하여 본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점이다.

---

30) 築島裕(198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ヲコト點 假名字體表』, 汲古書院.

한국 角筆符號口訣의 單點이 일본보다 상당히 조밀하게 기입되어 있는 것은 기입도구가 각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毛筆에 의한 기입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밀한 위치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31]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점이지만, 일본의 각필훈점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각필 오코토점은 일반적으로 朱墨點보다 매우 간단한 單點과 약간의 線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32] 오코토점 부호의 다양성에 있어서 일본의 각필점이 한국의 각필점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일본의 각필점은 일반적인 朱墨點에 의한 학통의 범위 내에서 훈점기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필자는 기입도구라는 특징에 의해서 조밀하게 단점도의 위치설정이 가능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의 석독기입의 학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일본은 문자에 해당하는 가나(假名)와 부호에 해당하는 오코토점의 양쪽을 사용하여 훈점기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자연적으로 오코토점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언어범위가 매우 제한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角筆符號口訣은 일본의 가나(假名)문자에 해당하는 문자구결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난다 하드라도 점토구결의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점토구결이 나타내야 하는 언어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점토구결이 담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호의 종류와 정방형단점도에 조밀한 위치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앞에서도 언급한 가나(假名)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오코토점만으로 훈독을 하고 있는 「春秋經伝集解卷第二」(9세기말~10세기경; 朱點·墨點)에 나타나는 오코토점이다. 아

31) 小林芳規(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日本古訓點との關係－」, 『朝鮮學報』 第182輯, 朝鮮學會, p17.
32) 小林芳規(1987), 『角筆文獻の國語學的研究 研究篇』, 汲古書院, p.304 以下.

래의 (F)의 單星點圖의 위치설정은 18개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발견 위치설정까지를 계산한다면, 25개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46행만이 전해지는 사본으로서 만약에 完本이 전해진다면, 좀더 많은 單星點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는 朱墨點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바늘 끝으로 찌른 것 같은 매우 작은 점으로 기입하고 있다고 한다.[33] 이러한 單星點의 형태는 제한된 한자의 字面에 조밀한 단점을 구분해서 기입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기입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 瑜伽師地論의 單點의 位置와 點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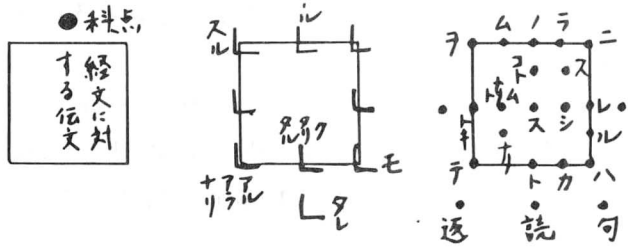
가. 『瑜伽師地論』 부호의 위치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61	62	63	64	65

나. 單點의 點圖

支	12	13	乃	口,尒
25				25
人	32	丁	乙	彐
41	八	印	44	45
土	七	冂	十	55
丨	62	丶	下	夕

(F) 「春秋經伝集解卷第二」의 點圖



33) 小助川貞二(2001), 「加點稀薄な漢籍訓點資料における典據の問題」, 『漢文古板本とその受容(訓讀)』(일본 北海道大學워크숍 발표논문집), p.66, p.71.

4.4. 點圖기입

點圖라는 것은 한자를 상정한 정방형의 그림에다 점토구결(오코토점)의 형태와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瑜伽師地論」에서는 정방형點圖가 欄上의 2곳에서 나타난다. 아래의 (G)에 예시한 바와 같이 角筆點으로 정방형의 테두리와 線點이 표시되어 있으며, 나중에 동일한 형태의 墨書가 기입되어 있다. 點圖에 기입된 점토구결은 이 점도가 표시된 欄上 아래 문장의 어떤 文句에 대해서 別種의 讀法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점도기입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訓點本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통이 다른 오코토점에 대한 다수의 정방형점도를 제시한 점도집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외에도 古記錄에 기술되어 있는 점도를 들 수 있다. 일본의 훈점본이 9세기부터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점도의 기입이나 點圖集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늦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훈점본에 보이는 最古의 점도는 아래의 (H)에 제시한 「石山寺本蓮花胎藏界儀軌解 卷中」(1054년)의 겉표지 뒷면에 1개의 점도가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서 西墓點에 상당하는 오코토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계통의 오코토점을 가나(假名)로 훈점기입할 때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메모용으로서 적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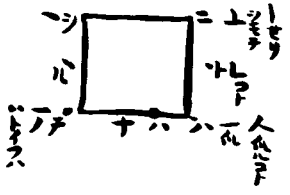
다음으로 오래된 것은 「日光山輪王寺天海藏金剛般若經集驗記」(1113년)의 겉표지 뒷면에 4개의 점도가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圓堂點의 點圖로서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오코토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기입자가 평소에 사용했던 오코토점과 다른 것으로 移點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한 備忘의 점도였다. 또한 아래의 (I)의 「興福寺藏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第二」(1116년)에는 한국의 점도기입과 같은 형태로서 한문본문의 欄下에 東大寺點의 일부를 정방형점도 2개에 기입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계통의 오코토점을 가나(假名)로 바꾸어 기입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한 메모

용 점도이다. 이후에도 「天治本新撰字鏡」의 古辭書와 훈점자료에 다수의 點圖가 전해지고 있으나, 11세기에서 13세기 초까지의 훈점자료에서 보이는 점도는 상기의 예와 같이 정방형점도 1개 내지 2개로 전해지는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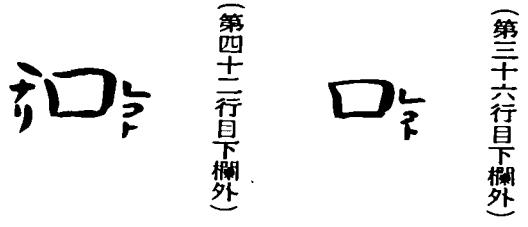
(G) 瑜伽師地論의 欄上의 點圖



(H) 「石山寺本蓮花胎藏界儀軌解 卷中」의 點圖



(I) 「興福寺藏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第二」의 點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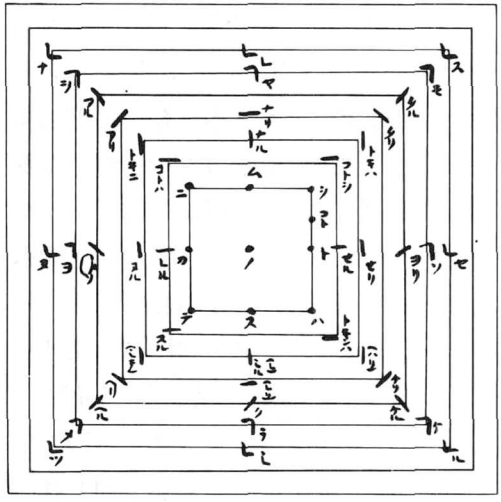
13세기에 들어가면 계통이 다른 2종 이상의 점도를 모은 點圖集이 만들어진다. 점도집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南都 및 眞言宗 계통의 오코토점이 수록된 것, 두 번째로 天台宗계통의 오코토점이 수록된 것, 세 번째로는 종합점도집으로서 南都 및 眞言宗 계통과 天台宗 계통의 오코토점을 정리하여 수록한 점도집이다. 最古의 점도집은 「醍醐寺藏諸家點」(13세기 전반)에 접은 종이 1장에 「喜多院點」의 10개의 점도, 「寶幢院點」의 25개의 점도, 「俗點」의 10개의 점도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계통이 다른 3종의 오코토점을 모은 것이다. 정방형의 테두리는 墨書로, 오코토점은 朱書로 기입하고 있다.

南都 및 眞言宗 계통의 오코토점이 수록된 점도집으로서는 文永三年(1266)本과 文永十年(1273)本으로 「東大寺點」「喜多院點」「中院僧正點」 등의 오코토점이 주로 수록되어 있으며, 전자는 27종, 후자는 18종의 오코토점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천태종이 사용한 오코토점을 수록한 점도집으로인 文安本(1447년)에는 「西墓點」「寶幢院點」 등의 6종의 오코토점을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最古의 識語를 가지고 있는 延應本(1239)는 종합점도집으로서 26종의 오코토점을 수록하고 있다. 현존하는 점도집 중에서 오랜된 年紀를 갖는 것들은 모두 南都系·眞言宗계통의 학승과 관계가 있는 점에서 점도집은 이러한 종파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石山寺深密藏雄琴點」 1冊은 「喜多院點」과 「經傳點」을 수록한 것으로 文明三年(1471)의 本識語가 기입되어 있는데, 아래의 (J)에 제시한 「經傳點」은 정방형을 9겹으로 그려서 오코토점을 기입한 특이한 점도집이다.[34]

---

34) 築島裕(1986), 「點圖集の成立と展開」, 『平安時代訓點本論考 ヲコト點 假名字體表』, 汲古書院, pp.19 以下.
본고에 수록한 일본의 점도는 상기의 논고에서 轉載한 것임을 밝혀둔다.

(J) 「石山寺深密藏雄琴點」의 點圖



이상으로 일본의 훈점자료와 점도집에 나타나는 점도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일본의 훈점자료에 나타나는 점도는 한국의 유가사지론의 점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나 두 개의 간단한 점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비슷하지만, 점도기입의 이유에 대해서는 훈점기입자가 평소에 사용했던 오코토점과 다른 點으로 移點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한 備忘의 점도였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서 「瑜伽師地論」에 나타나는 2개의 점도는 점토구결만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비망의 기입이라기보다는 異讀法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직 점도집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상기에 제시한 점도의 형태에서 일본과 현저하게 다른 점을 지적한다면, 일본은 오코토점에 반드시 읽는 독법을 가나(假名)로 기입하고 있는 점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본문의 점토기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欄上의 점도에도 문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훈점자료에 나타나는 정방형점도 및 점도집에는 반드시 오코토점과 함께 가나

(假名)을 기입하고 있는 형태에서 오코토점은 언어적인 부호로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점토구결의 사용기간이 후대에까지 이른다면, 복잡하고 다양한 점토구결을 기입하거나 해독하기 위해서 문자구결이 기입된 점도집의 사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2000년 7월에 발견되어 한국과 일본의 국어학계에 주목을 받았던 한국의 角筆符號口訣 자료 중에서 「瑜伽師地論」 卷第三·卷第五·卷第八의 3卷에 나타나는 점토구결과 문자구결에 관련된 문제점을 일본의 훈점자료와 비교 고찰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우선 한국의 점토구결과 문자구결을 기입한 도구가 각필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일본의 각필점에서 찾아보았고, 특히 한국에서 발견된 각필자료는 일본의 일반적인 古訓點本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오코토점의 기입방식이 한국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필로 후대의 한글이나 그림이 기입되었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국어사적으로 놀랄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각필점이 구어적인 반영이나 방언자료로서의 가치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角筆符號口訣이 나타나는 자료가 初雕大藏經과 같은 佛典이라는 점과 상당히 복잡한 부호구결을 상세하게 자료 全文에 기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각필점의 연대추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점토구결과 오코토점의 기능을 비교 검토하였는데, 일본의 경우는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호로서 본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서 오코토점과 가나(假名)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오코토점과 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動詞나 名詞 등은 문자인 가타가나(片假名)로, 助詞나 助動詞類는 부호인 오코토점에 의해서 기입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서 角筆符號口訣 자료에서는 완전히 점토구결만으로 석독을 하고 있으며, 특히 「瑜伽師地論」에서 나타나는 소수의 문자구결은 점토구결과 함께 동일한 口訣字가 기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자구결은 점토구결을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일본훈독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오코토점은 초기의 매우 간단한 單點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부호와 복잡한 체계로 발달하였다. 기본적으로 오코토점은 한국의 점토구결과 마찬가지로 單點과 線點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지만, 「ス フ ヒ ム ル」와 같이 가나(假名)문자를 부호화하여 사용하는 일이 있으며, 이외에도 시각적인 형태의 다양한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점토구결의 기본은 單點이라는 점은 같지만, 여기에 線點을 조합해서 일본보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부호구결을 만들고 있다. 즉 한국의 점토구결의 형태는 點과 線을 이용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계산된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한국의 점토구결의 형태 중에서 쌍점의 형태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일본의 오코토점 중에서 특히 寶幢院點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寶幢院點의 점도집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오코토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훈점본에서 사용된 오코토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의 부호구결자료에서 보이는 점토구결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점토구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單點인데, 「瑜伽師地論」의 단점도는 21개 이상 30개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일본 오코토점의 단점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7개에서 14개 이내로 위치가 설정되고 있다. 한국의 角筆符號口訣의 單點이 일본

보다 상당히 조밀하게 기입되어 있는 것은 기입도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각필석독기입의 학문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일본은 문자에 해당하는 가나(假名)와 부호에 해당하는 오코토점을 사용하여 훈점기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에 비해서 한국은 언어표현의 한계를 지닌 점토구결만을 가지고 석독기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호의 종류와 정방형단점도의 조밀한 위치설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점도기입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訓點本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통이 다른 오코토점의 다수의 정방형점도를 제시한 점도집에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의 훈점자료에 나타나는 점도는 한국의 유가사지론의 점도와 하나나 두 개의 간단한 점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비슷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훈점기입자가 평소에 사용했던 오코토점과 다른 것으로 移點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한 備忘의 점도였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서 「瑜伽師地論」에 나타나는 2개의 점도가 점토구결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비망의 기입이라기보다 異讀法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양국이 점도의 특징 중에서 큰 차이는 일본은 오코토점에 반드시 가나(假名)로 읽는 독법을 기입하고 있는 점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본문의 점토기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欄上의 점도에도 문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이 일본 훈점의 오코토점의 특징은 한국의 점토구결과 유사한 점도 있는 반면에, 매우 다른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른 角筆符號口訣 자료와의 비교고찰과 부호구결의 해독의 진전에 따라서 한일양국의 한문독법에 사용된 점토구결과 오코토점의 성격과 특징을 좀더 명확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영욱(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연구」, 『口訣硏究』 제7집, 口訣學會, 57~77면.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24호, 韓國書誌學會, 5~45면.

_____·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제107집, 訓點語學會, 1~58면.

_____(2002), 「高麗時代 角筆點吐 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중심으로-」, 『朝鮮學報』 제183집, 朝鮮語學會, 1~22면.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7집, 口訣學會, 167~197면.

李丞宰(2000), 「새로 발견된 각필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생활국어』 제10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135~152면.

_____(2001),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각필부호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7집, 口訣學會, 1~32면.

_____(2001), 「『瑜伽師地論』 각필 부호구결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229~250면.

_____(2001),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國語學』 38, 國語學會, 89~116면.

_____(2002), 「符號의 字形과 制作 原理」,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61~78면.

_____·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제9집, 口訣學會, 115~145면.

장경준(2001), 「釋讀口訣의 '故'자의 현토 경향에 대한 고찰(1)-字吐釋讀口訣 자료 5종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제7집, 口訣學會, 113~134면.

_____(2002),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제9집, 口訣學會, 203~224면.

石塚晴通(1993), 「中國周辺諸民族に於ける漢文の訓讀」, 『訓点語と訓点資料』

第90輯, pp.1～7.
石塚晴通(2002),「漢字文化圈의 加點史에서 본 高麗口訣과 日本語初期 訓點資料」,『口訣硏究』제8집, 口訣學會, pp.111～122.
大坪併治(1961),『訓点語の硏究』, 風間書房.
春日政治(1984),『古訓點の硏究』(春日政治著作集 6 所收), 勉誠社.
小助川貞二(2001),「加點稀薄な漢籍訓點資料における典據の問題」,『漢文古板本とその受容(訓讀)』(일본 北海道大學워크샵 발표논문집), pp.62～90.
小林芳規(1967),『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漢籍訓讀の國語史的硏究』, 東京大學出版會.
_____(1987),『角筆文獻の國語學的硏究 硏究篇』,『角筆文獻の國語學的硏究 影印資料篇』, 汲古書院.
_____(1989),『角筆のみちびく世界』, 中央公論社.
_____(1994),「敦煌の角筆文獻 一大英圖書館藏「觀音經」(s.5556)の加點一」,『訓點語と訓點資料』第96輯, pp.1～20.
_____(1997),「敦煌文獻に加點された角筆の符號と注記及び本邦の古訓點との關係」,『訓點語と訓點資料』第100輯, pp.22～44.
_____編(1999),『角筆文獻目錄(1999年度版) 附・角筆文獻論考』, 私家版.
_____・西村浩子(2001),「韓國遺存の角筆文獻調査報告」,『訓點語と訓點資料』제107輯, 訓點語學會, pp.36～68.
_____(2002),「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口訣硏究』제8집, 口訣學會, pp.21～76.
_____(2002),「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日本古訓點との關係－」,『朝鮮學報』第182輯, 朝鮮學會, pp.1～82.
鈴木一男(1979),『初期點本論攷』, 櫻楓社.
築島裕(1969),『平安時代語新論』, 東京大學出版會.
_____(1981),『日本語の世界5 假名』, 中央公論社.
_____(1992),「角筆點から毛筆點への移點」,『小林芳規博士退官記念 國語學論集』, 汲古書院, pp.27～49.
_____(1986),『平安時代訓點本論考 ヲコト點 假名字體表』, 汲古書院.
_____(1996),『平安時代訓點本論考 硏究篇』, 汲古書院.

中田祝夫(1954), 『古點本の國語學的硏究 總論篇』, 講談社.
吉田金彦・築島裕 外編(2001), 『訓點語辭典』, 東京堂出版.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한밭대학교 외국어학부 일본어전공]
E-mail: hsyoon@hanbat.ac.kr
접수일자: 2002.11.28.
게재결정: 2003.01.25.

漢文讀法に現れる韓國の角筆符號口訣と日本のヲコト點との比較

－「瑜伽師地論」の點吐口訣と文字口訣とを中心に－

尹幸舜

本考は韓國の角筆符號口訣資料の中で「瑜伽師地論」卷第三・卷第五・卷第八の三卷に現れる點吐口訣と文字口訣に關聯する問題點を日本の訓點資料と比較考察を行った。角筆點吐口訣の年代推定の重要性と點吐口訣とヲコト點の機能を比較檢討した。また日本のヲコト點と韓國の點吐口訣の符號形態の特徵を指摘したのであり、日本ヲコト點と韓國の點吐口訣の最も基本となる單星點の位置設定に對する比較を行った。最後に日本と韓國の點圖の理由とその特徵を言及した。

このような比較檢討によって、日本の訓點におけるヲコト點特徵は韓國の點吐口訣と類似した點と非常に異なる點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た。これからも角筆符號口訣資料の考察とともに、符號口訣の解讀の進展によって、韓日兩國の漢文讀法に用いられた點吐口訣の樣子をさらに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

*キーワード: 角筆符號口訣, 點吐口訣, 文字口訣, 點圖, 角筆點, 訓點, ヲコト點